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1)(2/1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3 장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네 가지 길, 8-10 절

시 122:7 - 네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 43:3 -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창 1:2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8.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의 밝고 영원한 빛을 내게 비추셔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어둠을 몰아내어 주소서. 내 안에서 피어올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잡념들을 없애 주시고, 맹렬하게 공격해 오는 시험들을 분쇄해 주소서. 나를 위해 용맹하게 싸워, 악한 짐승들, 즉 나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들을 격퇴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시고(시 122:7), 주의 거룩한 전, 곧 순전한 양심이 주를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소서. “잠잠하라”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며, 북풍에게 “불지 말라”고 말씀하소서. 그러면, 거기에는 지극히 큰 잔잔함과 고요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9.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시 43:3), 땅을 비추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까지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창 1:2). 위로부터 오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늘의 이슬로 내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거룩한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땅의 지면을 촉촉이 적셔 주심으로써, 선하고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최악의 무거운 짐에 눌러 있는 내 마음을 들어올려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들이 하늘의 것들로 향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달콤한 행복을 맛보고서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게 하소서.

10. 나를 이끌어 주셔서, 피조물들로부터 오는 온갖 덧없는 위로로부터 건져 주소서. 그 어떤 피조물도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내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나를 주께 매소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고, 주 없이는 모든 것이 무가치할 뿐입니다.

말씀과 해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악한 생각에 대한 다양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마 9 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라고 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마 9:3)라고 하였다. 그 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마 9:4)라고 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신 것이다. 악한 생각은 죄에 물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다. **마 15:19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은 죄의 결과이며, 더럽혀진 마음의 샘에서 솟아나는 구정물과 같은 것임을 생각해 보게 한다. 결국 더러운 샘물처럼 솟는 악하고 잘못된 생각은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 인간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고 하셨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함께 보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우리의 온 존재로 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고전 13 장에서 사랑을 묘사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고전 13:5 -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은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며,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그냥 생각만 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습까지 다 드러내며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 우리의 영과 육, 우리 안과 밖을 모두를 보신다. **잠 15:3 -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 21:2 -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생각까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생각의 바름과 정결함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된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하고 영성수련을 많이 해도 악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성결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퀴나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제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순간순간 솟아나는 잡념, 어두운 마음, 유혹에 흔들리는 생각, 정욕, 불결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아퀴나스는 통제 안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했다. 그렇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바울은 엡 6 장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언급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엡 6:18 -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강조했다. **벧전 4:7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 마음의 어둠, 더러움, 혼탁함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은 빛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신다. **시 43:3 -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르게 하소서. 요 1:9 -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씻으시는 물과 태우시는 불처럼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신다. **히 10:22 -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전 6:9-11 -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자신의 심령을 씻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내 안의 모든 더럽고, 왜곡되고, 냄새나는 생각과 마음들을 몰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마 5:8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씻으시고 태우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대만 정안진, 미얀마 정요엘, 채희철, 중국 정후란시스, 파키스탄 최아브라함)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